

## 여행과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본 <토지>의 인물 양상

이 미 립\*

### 차 례

- |                                |                                    |
|--------------------------------|------------------------------------|
| I. 서론                          | 3. 어린아이·나그네로서의 초인적 인간형: 주갑         |
| II. 외부지향성과 여행/방랑/이주 모티프        | 4. 국가·사랑·예술에 대한 회의 및 시대의 데카당스: 이상현 |
| III. 경계인·이방인으로서의 방황하는 청년들      | IV. 『토지』의 동시대적 의미와 21세기적 접속        |
| 1. 상처치유와 자유갈망을 꿈꾸는 허무주의자: 송영광  |                                    |
| 2. 다문화적 세계시민의식의 코스모폴리탄: 오가다 지로 |                                    |

### 국문초록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의 하나인 <토지>는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본고는 <토지>의 문학적 가치를 탈국경, 디아스포라, 외부지향성, 다문화 등의 동시대적 의미로 보면서 방황 혹은 방랑하는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부각되는 조선족, 고려인, 재일조

\*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선인 등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출현은 강제이산을 할 수밖에 없던 일제 강점기 삶의 고달픈 여정에서 비롯된다.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은 여행, 방랑, 이주하는 일상 속에서 가족과 집에 안주하거나 정착이 불가능했다. 방황하는 청춘의 입사와 시대적 질곡으로 인해 부유하는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송영광, 주갑, 오가다 지로, 이상현이다. 전근대와 근대가 혼효된 이 시기에 근대교육, 승경관람, 독립운동, 강제이산, 생계이주, 근대여행 등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떠났다. 독립운동가 아버지와 백정출신인 어머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랑하는 송영광은 무책임과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작가에 의해 아름답고 영성적인 청년으로 탄생된다.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를 증오했던 작가에게 오가다 지로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본인으로 묘사된다. 제국청년인 그는 식민지 조선여인을 사랑하는 세계주의자이자 다문화주의자이다. 동일자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다문화가정 2세인 자신의 아들과 가정을 꾸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여행가방을 들고 기차, 여관공간에 머무는 여행자이자 아웃사이더로 살아간다. 어린아이, 나그네로서의 초인적 인간형인 주갑은 무욕, 웃음, 순진무구한 명랑성을 지닌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다. 그는 목적과 정치없이 주어진 대로 삶을 변형하는 소리꾼으로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위버멘슈’이자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상현은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으로 국가, 사랑, 예술, 가정 그 어느 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자학하고 방랑하는 시대의 데카당스이다. 이들은 작품 속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출생에 대한 상처, 남편과 아들의 죽음, 생계담당, 암선고, 창작에의 고통 등을 감내하면서 여성억압적 현실과 인습의 폐해, 인간불신으로 아프고 괴로웠던 작가가 추구하고자 했던 자유로운 존재이자 노마드 시대의 21세기적 인간형으로 구현되고 있다.

주제어 : 여행/방랑/이주 모티프, 방황하는 청춘, 디아스포라, 코스모폴

## 리탄, 초인, 데카당스

### I. 서론

박경리 문학에 대한 연구업적은 상당수에 이른다. 이러한 양적 방대함은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진입 장벽이 되어 역설적으로 <토지> 연구를 고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으나<sup>1)</sup> 600여명의 작중인물과 광활한 시공간을 가르는 16부작이 지닌 함의는 여전히 무한하다. <토지>를 대상으로 역사학, 철학, 사회학, 법학, 정신분석학 등의 인접학문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가족서사·애정갈등서사·항일운동서사, 공간 및 작중인물 분석, 여성주의적 관점, 생명사상 및 민족의식, 한과 악과 같은 주제적 분석, 비교문학적 관점과 영상매체로 전환한 텍스트 연구 등 다채로운 관점에서 문학적·문학사적 가치가 규명되고 있다.

본고는 국가, 혈연, 가족, 지역을 초월하고 극복하고자 했던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시대와의 불화로 인한 인간적 고뇌와 디아스포라적 삶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라도 출신의 주갑과 일본인인 오가다 지로는 경상도 하동 평사리 주민이 주류를 이루었던 공동체에서 이방인이자 경계인의 속성을 지닌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마을사람들의 타자지향적 자세와 환대, 그리고 이방인의 다문화주의적이고 코스모폴리탄적 면모는 작가가 지향하고자 했던 무의식적인 삶이었다. 식민지 조국과 부친을 극복하지 못했던 영광과 상현의 떠돌이도 약하고 상처받은 우리 민족의 상징적 모습이다. 이들은 결혼 유무를 떠나 안정되거나 정주하는 일상을 보내지 못하고 여행과 방랑, 이주함으로써 표류하는 시대와 방황하는 청춘의 입사를 시대적 질곡 속에서 담아내고 있다.

1) 박상민, 「<토지> 연구의 통시적 고찰」, 『제1회 박경리문학계 문학포럼 자료집』, 2010, 12쪽.

기존의 <토지> 연구는 민족주의적·보수적인 유교이념을 지향한 박경리의 역사인식과 여성의식에 초점을 맞추거나 '토지'를 소재로 한 평사리 농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작중인물 분석에 있어서도 윤씨부인, 최치수, 최서희 등의 윤씨 일가나 월선, 봉순, 길상, 용이, 임이네, 귀녀, 임명희, 조준구와 같은 비중 있는 인물에 초점<sup>2)</sup>을 두었기에 이 글에서는 고아의식, 난민의식, 이방인의식을 지닌 방랑자와 여행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인물 연구는 남성/여성, 긍정적 인물/부정적 인물, 선인/악인의 인물유형을 이원화한 후 전자에 애정을 가졌던 작가의 인물탐색<sup>3)</sup>이 고착화되는 경향이였다.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인물 가운데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거나 시대와 불화한 남성인물의 삶과 고뇌를 통해 귀속감에서 벗어난 방랑자, 나그네, 이방인이야말로 '남다르게 겪은 개인적인 고통과 시대의 폐해와 아픔의 경험들을 문학의 자료로 삼은'<sup>4)</sup> 작가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삶이 아니었을까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제국과 식민지 관계 속에서 타자적 정체성과 분열된 자아를 형성하면서 유동하는 삶을 살아야했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국을 강탈당한 망국민에게 정착과 안정, 평화로운 일상이란 불가능하였고, 한국근대사의 혼란기였던 구한말과 식민지 근대를 배경으로 여행/방랑/이주는 <토지>를 이해하는 또하나의 키워드이자 노마드적으로 사유하는 요즘의 연구경향에도 부합한다.

2) 박혜원, 「박경리의 <토지>의 인물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2.

이덕화, 「서술의도에서 본 <토지>의 인물 유형」, 『<토지>와 박경리문학』, 솔, 1996.

3) 악인의 경우 귀녀, 임이네, 조준구, 조준구의 처 흥씨, 칠성이, 김두수를, 선인의 경우 별당아씨, 월선, 구천, 용이, 길상, 장연학, 조병수, 환국 등으로 이분법화시켜 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선악의 구별보다는 식별불가능한 시공간에서 현재의 질서와 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인물을 통해 인물유형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4) 김현숙, 「박경리 작품에 나타난 죽음과 생명의 관계」, 『현대소설연구』 제1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309쪽.

## II. 외부지향성과 여행/방랑/이주<sup>5)</sup> 모티프

1897년부터 해방까지의 시간성과 일본, 조선, 만주, 러시아의 공간성을 배경으로 하는 <토지>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최근의 화두인 다문화, 디아스포라, 탈국경 모티프 속의 여행과 이주, 방랑 키워드라는 동시대적 의미를 지닌다. <토지>는 189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의 당대성과 2000년대 현대성의 시공간을 가르며, 유동하는 시대의 자유와 영원성의 본질에 대한 인간탐구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대의 탈국경 이동은 현재의 삶 속에서 진행 중이다. 구한말부터 한일강제병합, 해방까지 우리 사회는 봉건세대의 종말, 식민지 근대와의 착종, 일본제국의 전쟁 참여, 조선독립이라는 대혼란을 겪어왔다. 이 시기에 고향과 고국을 떠났던 우리 민족은 차별과 배척을 받으며 거주국의 성원이 되기 위해 한민족 전통과 역사와 문화를 망각해야 했다. 조선족, 고려인, 재일조선인은 ‘조선’, ‘고려’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듯이 과거의 흔적과 현재 그리고 탈근대 시대를 공유한다.

구한말과 식민지를 배경으로 하는 <토지>속의 이동은 식민지적 갈등 구조를 지닌 일제 치하라는 시대적 조건에 의해 외부지향성을 보인다. 일제 주구의 만행을 못이겨 고향을 떠난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양산된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학도병, 의병, 독립운동가, 실향자, 방랑자 등의 노마드가 해방 후에도 귀환하지 못하고 거주국의 소수민족이 되어 주변

5) 여행은 자발적이고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방랑(유랑)은 생활이 영락하거나 난세를 만나거나 흑심한 주구를 견디지 못하여 고향을 떠나는 것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일정한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며, 이산(디아스포라)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을 떠난 한민족이주자처럼 폭력적으로 강제된 이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표류하고 유동하는 이동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토지>의 정착과 이주라는 변증법적 소설구성의 주요모티프로 식민지라는 시대적 질곡을 표상하고 있다. - 이미림, 『우리시대의 여행소설』, 태학사, 2006, 17-18쪽, 『21세기 한국소설의 다문화와 이방인들』, 푸른사상, 2014, 24쪽 참조.

부 삶을 영위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2,3세대들은 1990년대 한중, 한소 수교 이후 고국을 찾아오거나 코리안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시기는 조선독립의 시대적 소명 이외에도 근대를 향한 열망으로 식민지 젊은이들이 경성, 동경으로 유학하거나 서구도시를 재연한 하얼빈을 여행하였다. 여행지는 타문화, 타민족, 타언어가 혼효된 다문화도시였다. 이 시대는 전국민이 떠도는 유랑의 세월이었다. 더불어 독립운동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간도와 연해주로 떠난 독립투사들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랑, 여행, 유학, 이주, 독립운동 등의 이유로 이동하였고 목적지는 일본, 간도, 러시아와 같은 외부였다. <토지>에 등장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한민족분산역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sup>6)</sup>에 해당된다. 토지와 생산수단을 빼앗긴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정치적 난민들의 이산과 더불어 1932년 만주국 건설을 계획한 일본에 의해 대규모 집단이주가 강제되었다. 또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식민지 젊은이들이 학병, 일본군위안부, 광산부로 끌려갔다. 일제의 총알받이였던 우리 민족이야말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가의 외부에 머문 호모사케르<sup>7)</sup>이자 부유하는 시대의 난민이었다.

소설공간의 배경인 일본과 간도, 연해주는 뿌리뽑힌 한민족의 이주지역이다. 특히 간도<sup>8)</sup>는 가까운 곳이자 땅이 넓고 기름지다는 소문이 퍼

6) 한민족 분산의 역사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시기는 186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로 구한말의 농민, 노동자들이 기근, 빈곤, 압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 중국, 러시아, 하와이로 이주했고, 두 번째 시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세 번째 시기는 1945년부터 1962년까지로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발생한 전쟁고아, 미군과 결혼한 여성, 혼혈아, 학생 등이 입양, 가족재회, 유학 등의 목적으로 미국 또는 캐나다로 떠났으며, 네 번째 시기는 1962년 이후로 이때부터 정착을 목적으로 한 이민이 시작되었다.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출판부, 8-10쪽, 2004.

7) 아감벤의 용어로 속세영역에서 배제된 자로 경계영역에 놓이며 정치질서 속에 포함시키는 근원적인 예외를 성립시킨 별거벗은 생명, 목숨 자체만 지닌 날것의 생명적 존재를 말한다.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180쪽.

진 곳이기에 가장 많이 이주했지만 중국, 일본, 한국, 아라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부딪친 공간<sup>8)</sup>이었다. 이곳에서 중국인, 일본인의 배제적 시선을 받으며 소수민족으로 살아야했던 이주자의 고통과 삶의 질곡은 이루 말할 수 없었기에 <토지>속의 간도는 평사리와 더불어 주요공간으로 설정된다. 제국의 타자로 은유되고 표상되는 이주노동자, 학병, 방랑자들은 ‘불량선인’,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산주검(undead)과 같은 희생양이었다. 농사일밖에 모르던 소작인들의 공동체적 삶이 최씨 집안의 몰락과 조국상실로 뿔뿔이 흩어짐으로써 평사리 주민들의 방랑하는 삶이 전개된다. 사상적으로도 유교이념과 사회주의, 민족주의, 페미니즘, 아나키즘과 같은 이념들이 혼재되며, 전근대/근대의 과도기속에서 젊은이들은 정체성을 고민하고 방황했다. 근대와 조국상실을 동시에 경험한 우리 민족은 일본유학을 통해 신지식과 근대의식을 배웠고, 간도이주라는 험난한 이산체험을 했다. <토지>의 공간이 폭넓고 다채로웠던 것도 우리 민족의 삶이 안정되거나 평온하지 못하고 전체가 부유하고 유랑하였기 때문이다.

평사리로 제한되었던 지리적 공간은 후반기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데, 진주 서희네-하얼빈(이동진, 강두메, 김길상의 활동영역)-통영(형평사 민중봉기)-하동-평사리-일본(관동대지진)-서울(조용하, 조찬하 형제)과 같이 사건을 전개시키며 공간을 넘나든다. 이에 따라 기차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영광과 양현의 운명적인 만남은 비극적 사랑과 엇갈린 운명을 유동하는 기차공간을 통해 추동된다. 거쳐 없이 이동하는 기차는 안정된 가정을 가질 수 없는 식민지 민족의 떠도는 공간이다. 근대성의

8) 간도로 이민행을 결심한 농민들 대다수는 ‘千辛萬苦라도 餓死나 勉하리’(동아일보, 1926.11.20) 가자는 생각을 가졌을 뿐 낙도로 여기지 않았으므로 자의지에 입각하여 제 발로 나간 외형을 취하긴 했지만 실제로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다. - 조남현, 「192,30년대 소설과 만주이주모티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90, 229쪽.

9) 위의 책, 222-223쪽.

상징인 기차는 침략과 지배, 수탈과 분열, 차별이라는 식민지의 모순을 실어나르는 슬픈 기관<sup>10)</sup>이자 한과 비애를 느끼게 하는 공간이었다. 식민지는 철도망에 의해 제국에 접속되고 있는데 근대초기 지식인들은 동경-경성-하얼빈이라는 근대적 공간으로 이어지는 철도의 배치<sup>11)</sup>를 느낄 수 있으며 주인공을 이동시켜 식민지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해준다.

기차뿐만 아니라 역대합실, 역광장, 여관과 여인숙, 거리장면도 빈번하게 등장함으로써 부유하는 시대의 삶이 포착된다. 여관이나 대합실은 가족이나 안방에서 이뤄지는 관계가 단절되는 공간으로 이러한 문턱, 광장 같은 공간에서 위기, 급격한 교체, 운명의 예기치 않은 급변이 벌어지고 결정이 내려지고 금단의 경계선이 무너지며 갱생 혹은 소멸을 당하는 위기적 시간(crisis time)<sup>12)</sup>과 대면하게 된다. 송영광, 오가다 지로, 조찬하는 여행가방을 들고 이등 대합실이나 여관방을 전전하며 동아시아를 떠도는 ‘목적 없는 여행’을 함으로써 방향상실과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층민의 떠남과 함께 승경(勝景)관람이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여행기들이 신문에 많이 수록되었다. 여행은 망국민의 국권회복을 위한 한국인에게 한국 밖에서 펼쳐지는 정세변동과 새로운 사상, 문물을 소개함으로써 망국민으로서의 자각을 요구<sup>13)</sup>하며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방식이었다. 일본백작인 조찬하도 심경이 복잡할 때마다 여행을 떠나며, 영광과 주눅처럼 일자리를 찾아 목적지를 정해 놓지 않고 방랑하는 경우가 많다. 탈향, 탈국은 조선인 뿐만 아니라 전쟁과 일본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무라가미 쇼지나 오가다 지로의 삶에서도 나타난다. 망국민의 역마살 운명과 디아스포라적 상황은 국가와 연인과 가족의 결핍 및 내면의 상처, 부채를 가져왔다. 이 시

10) 박천홍,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산치럼, 2002, 102쪽.

11) 이미림, 앞의 책, 56쪽.

12) 미하일 바흐친,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247-248쪽.

13) 윤선자, 『1920년대 한국인들의 중국여행기 분석』, 『제32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지, 2013.6.28, 226쪽.

대 젊은이들의 여행, 이주, 방랑은 열악한 삶의 조건과 신분의 고통과 시대적 억압, 청춘의 고뇌로부터의 탈주이자 저항이었다. 길떠남은 근대의 산물이며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국외의 공간에서 망국의 식민지 젊은이들은 방황하였다. 친일을 하든 반일을 하든 조선인이든 일본인이든, 민족주의자이든 세계주의자이든 이 시대야말로 가정을 이루거나 안주를 기대할 수 없는 불안하고 고뇌하는 시대였다.

### Ⅲ. 경계인·이방인으로서의 방황하는 청춘들

#### 1. 상처치유와 자유갈망을 꿈꾸는 허무주의자: 송영광

구한말에서 근대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인데다가 식민지화된 특수상황 속에서 근대를 수용했던 젊은이들의 혼란은 아웃사이더, 경계인, 디아스포라의 부유하는 일상적 삶으로 재현된다. 전통사회의 습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위기에서 가문, 혈통, 신분으로 인해 상처받거나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최치수 집안의 몰락의 계기가 된 귀녀의 욕망은 성을 가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신분상승에 대한 갈망이다. 역관의 딸인 임명희는 친일백작인 남편 조용하에게 무시당하고, 고아이자 하인인 길상은 양반가문의 최서희와 결혼하였으나 타국을 떠돌며, 기생이자 아편쟁이였던 봉순(기화)과 상현 사이에서 태어난 양현도 출생의 비밀로 고통받는다. 살인자의 아들이자 자살한 여인의 아들인 거북(김두수)과 한복, 살인자의 아내의 자식인 홍이, 종놈의 자식이라 놀림을 당하는 길상의 두 아들도 타자적 정체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인물들이다. ‘김길상’은 ‘최길상’으로, ‘김환국, 김운국’은 ‘최환국, 최운국’으로, ‘최양현’은 ‘이양현’으로, ‘김환’은 ‘구천’으로, ‘김거북’은 ‘김두수’로 ‘송영광’과 ‘나일성’, ‘유인실’과 ‘히토미’와 같이 고국/고향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름이 바뀌거나 이동하는 삶은 디아스포라의 속성<sup>14)</sup>이다. 신분이든 국적이든

디아스포라는 거주국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신분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현실을 외면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송영광은 백정집안 출신 어머니로 인해 정착하지 못한다. 백정의 외손자라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고 강혜숙과 일본으로 건너가 동거하지만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고 헤어진다. 세상에 대한 그의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시선은 가족보다 나라를 더 걱정하는 아버지의 독립운동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함께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깊은 회한과 자책을 느끼고 양현과의 운명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며 음악과 창작으로 도피한다는 점에서 이상현과 함께 데카당스한 삶의 태도를 지닌다. 독립투사를 둔 아버지를 혐오하고 극복하지 못한 두 젊은이는 타락과 퇴폐의 길을 걷는 방랑자이자 시대의 아웃사이더이다. 뿌리 깊은 자학과 방랑의 심성은 여성들에게 상처를 주며 희망 없는 삶을 살아내지만 시대적·운명적 환경에 놓인 식민지 젊은이의 고통과 비극적 삶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는 작가는 영광을 매력적인 인물로 창조한다.

양현은 창가에서 얼굴을 돌렸다. 영광은 잠이 든 것 같았다.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보기 좋게 퍼진 눈썹에서 그늘진 것 같은 눈시울은 소년 같이 깨끗했다. 얽은 상처가 있는 관골에서부터 깊은 고뇌를 나타내고 있었다.

거칠고 냉소적이며 때론 삭막해 보이는 평소의 영광과는 다르게 잠든 모습은 귀스럽고 정갈했으며 잘 생긴 남자라기보다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어딘지 모르게 영성적인 그런 모습이였다. 한동안 낮을 잃고 쳐다보던 양현은 제풀에 놀라서 시선을 거두었다. 남자의 잠든 모습을 정신없

- 14) 디아스포라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갖게 됨으로써 정체성의 혼란과 분열을 겪게 되며 다양성과 다국적성을 지닌다. 탈북여성, 입양아, 자이니치, 난민, 디아스포라의 다양하고 혼종적인 이름을 통해 이들의 삶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계속되는 이동으로 정주와 정착의 어려움을 말해준다. - 이미림, 「코리안 디아스포라문학에 나타난 예술·사랑·국가」, 『세계한국어문학』 제4집, 세계한국어문학회, 2010, 106쪽.

이 쳐다보고 있었던 자신의 행동이 수치스러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까닭 없이 속이 상했다. 고아 같은 생각이 들었다. (중략) 자기 내부를 밀폐해놓고 어느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 냉담하고 오만하고 세상을 알잡아 보는 눈빛, 폭발적으로 포악해질 수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우리 오빠들처럼 자상한 곳이라곤 없어, 없다. 하지만 외로운 섬 같기도 해. 절망하고 지쳐버린 나그네 같기도 하고 곧 죽어버릴 사람 같기도 하고……너무 섬세해서 사라지는 무지개 같기도 하고.<sup>15)</sup>

떠돌이 악사인 송영광은 ‘백정 출신’, ‘딴따라’, ‘불구’, ‘조선인’이라는 다중의 타자성을 지니며 기생의 딸인 양현이나 살인자 아내의 자식인 흥이, 종놈의 아들이라고 놀림받는 환국과 같은 고뇌를 겪는다. 양현에게 비친 영광은 ‘고아’, ‘섬’, ‘나그네’, ‘죽어버릴 사람’, ‘무지개’ 같은 인물이다. 사라질 듯한 그의 어두운 모습은 ‘아름답고 성스러운’ 이미지만큼에 자포자기, 타락, 냉정함, 무책임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용인하게 만든다. 신분에 대한 열등감은 폐쇄적이고 고립되게 하며, 환상과 낭만과 퇴폐를 추구하는 위험한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백정 출신이자 피식민지인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영광은 공연을 따라다니는 여행자로서 디아스포라적 삶을 형벌처럼 견디고 있다. 조속했던 영광의 방랑에의 동경은 동굴 속과도 같이 차단된 세계 속에서 떠도는 삶을 형성함으로써 여성과 가정에 안주하지 못한다. 신분에 대한 자의식과 형평사를 세워 백정의 인권을 주창하며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확대한다.

사통오달의 광장에 서서 여행 가방을 팔에 낀 영광은 담배를 뽑아물고 두 손으로 바람을 막으며 담뱃불을 붙인다. 언제나 그랬지만 가슴이 설레었다. 어디든 떠난다는 것은 새로움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또 다른 하나의 자신이 마치 번데기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폐쇄된 자기 자신

15) 박경리, <토지14> 5부 2권, 서울출판사, 1994, 20쪽.

으로부터 문을 열고 나서는, 그것은 신선한 해방감이다. 그러나 새로움이란 낯설음이며 여행은 빈 들판에 홀로 남은 겨울새같이 외로운 것, 어쩌면 새로움은 또 하나의 자기 폐쇄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른다. 마주치는 사물과 자신은 전혀 무관한 타인으로서 또 하나의 소외는 아닐는지. “역마살이라……”<sup>16)</sup>

독서광이었던 영광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동아시아를 떠돈다. 주어진 운명을 확대하는 영광은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고 강혜숙을 버렸으며 양현의 사랑을 거부한다. 곱게 자란 여의사 양현이 불행해질까봐 달아나는 영광은 온몸으로 저주받은 운명을 감당한다.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구락부에서 트럼펫을 연주하는 그는 슬픈 표정으로 음악에 몰두하는 장면들이 자주 오버랩 된다. 국가, 가족, 연인과 단절된 그에게 악기와 작곡이라는 음악행위는 목소리이자 침묵하는 발화이고 세상과의 소통이며 윤패된 자의식의 표현이다. 영혼을 달래주고 방종을 유도하는 음악에는 가장 좋은 치료와 근본적인 위험 즉 치료와 독약이 함께 들어있는 것<sup>17)</sup>이다. 특히 관악기에는 텍스트로부터 해방시키는 사악한 성질이 있어서 그것들은 말을 넘어선 목소리로서 그 목소리의 대체가 된다.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어머니와 고향, 가족을 벗어나 세상을 방랑하며, 기존질서와 규칙성에 저항하는 영광은 세속성과 재현을 초월해 영적인 승격의 요소가 되는 음악을 통해 관능적인 쾌락을 넘어서는 무분별한 향락<sup>18)</sup>을 만들어낸다. 자기를 투기하면서까지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영광은 강혜숙을 버림,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에 대한 자책과 슬픔, 양현과의 이루지 못할 사랑을 음악을 통해 위로받는다. 바닷가나 구락부에서 트럼펫을 불며 운명과 대면하는 영광은 자기 안의 타자를, 타자의 응시를 통해 자아를 탐색하고 시대적·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온몸으로

16) 박경리, 위의 소설, 11-12쪽.

17) 슬라보예 지젝 외, 라캉정신분석연구회 역, 『사랑의 대상으로서 시선과 목소리』, 인간사랑, 2010, 44쪽.

18) 위의 책, 51쪽.

저항하는 디오니소스적 광기와 우수를 지니고 있다. 무책임하고 퇴폐적이며 의지박약적인 영광의 모습은 비난의 대상일 수 있으나 작가에 의해 아름답고 영성적인 모습으로 탄생되며 그의 현실도피적이고 퇴폐적인 삶을 묵인하게 만든다. 로맨티스트이며 예술적 기질을 타고난 영광은 성장배경에 이미 모순이 싹트고 있었으며 이런 모순이 합리성으로 분해되지 않는 한민족의 아름다움을 낳는다<sup>19)</sup>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어머니를 경멸했고 아버지에게 반항했으며, 자신의 출생이 불합리하다고<sup>20)</sup> 생각했던 박경리의 일면이 영광에게 투사되어 그의 삶에 공감했던 것이다.

## 2. 다문화적 세계시민의식의 코스모폴리탄<sup>21)</sup>: 오가다 지로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 사이에 낀 경계인이자 식민지 현실에 동정적인 시선을 지닌 일본지식인 오가다 지로는 “작은 머리통에 중키보다는 크고 비쩍 마른 몸짓, 매혹적인 웃음을 빼면 학구형의 인상”으로 조찬하에게는 “어리석다 할 만큼 선량하고 순진한 위인, 투명한 느낌의 로맨티스트”로 묘사된다. 일본대지진 때 조선인 학생들을 구해준 중학교 교사인 그는 인간에 대한 평등사상과 연민을 갖고 있다. 일본인, 일본문화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작가가 유일하게 긍정하며 애정 어린 시선으로 묘사하는 인물이 오가다 지로이다. 그는 목숨을 건 자신의 구애를 원수의 동족이라고 거절하는 독립투사이자 사회주의자인 유인실을 타락녀로

19) 송호근, 『삶에의 연민, 한의 미학』, 『작가세계』 제22권, 세계사, 1994, 62쪽.

20) 박경리, 『반항정신의 소산』, 현대문학사 편, 『창작실기론』, 어문각, 1962, 369쪽.

21) 사전적 정의는 “세계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 혹은 세계주의자”로 되어 있으며, 학계에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공통된 이성을 갖고 있으며 하나의 신성한 로고스에 종속되어 있어 한 국가의 시민이 아닌 전체 세계의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글로벌 시대의 초국가, 다문화론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활용되며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모두를 넘어서는 정체성과 연결되기도 한다. - 김세령, 『탈북자 소재 한국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5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51쪽.

만들어 희롱하고 능멸하고 매도하는 풍문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민족적 사디즘이라며 분노한다. 계명회 사건에도 연루되는 등 양심적인 휴머니스트인 그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은 파격적이고 순애보적인 것이기에 소설에서 인상 깊은 사건으로 기록<sup>22)</sup>되고 있다. 민족주의, 국수주의에 대한 혐오는 그를 세계주의자로 만든다. 임명희를 얻지 못하고 일본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조찬하와 조선여인을 사랑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친 오가다의 대화에서 관습의 공고함과 보수적인 사회의식이 드러난다.

한데 조선의 사내 너는 어떠냐, 일본여자하고 결혼한 너는 서울에 가면 여전히 명문의 자제, 귀족의 칭호가 빛나는 귀공자로 행세할 거 아닌가. 어째서 그러냐. 나는 코스모폴리탄이다. 국가나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만을 인정한다. 이상주의라 비웃겠지만 세계가 하나로 되지 않는 한 약육강식의 비극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는 내 친구들이 있고 히토미는 내 꿈이었다. 해서 나는 조선을 사랑했다. 그런 순수한 마음에 대하여 그들은 나의 가장 순수한 것을 개천에 던져 쓰레기로 만들었다.<sup>23)</sup>

조선인들에게 그는 고마운 사람이고 일본인이란 저항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로 각인된다.

‘네 저는 인간입니다’, ‘모두 동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오가다는 민족과 국가를 양분하고 경계 지어지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세계주의자로서 낭만적·허무적 방황을 하는 디아스포라적 삶을 영위한다. 오가다가 느끼는 고아의식은 국경과 민족, 인종, 문화적 장벽을 넘는 21세기 다문화적 사유와 맞닿고 있으며 코스모폴리탄적이고 트랜스내셔널하다. 제국/식민지, 일본인/조선인이라는 장벽 때문에 안타까운 이별을 해야하는 오가다는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 여기며 자신을 거

22) 한승옥, 「〈토지〉의 다성적 특질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336쪽.

23) 박경리, <토지10>, 4부 1권, 삼성출판사, 1988, 143쪽.

부하는 유인실이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에 빠진다. 일본남자와 조선여성 그리고 다문화가정 2세인 쇼지가 함께 스위트홈을 이룰 수 없는 시대로서 유인실에게 있어 제국남성과의 사랑은 스스로 반역자, 매국노, 매춘부보다도 더러운 여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은 친일파 집안 출신, 일본여성과의 결혼이라는 가문의 열등의식을 지닌 조찬하도 고아, 외톨이, 유배자 정서를 갖고 있다.

“여행이란 이래서 좋은 건지 모르지요.” “네?” “고아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내 친구들이 많고 모두 나에게 민족적 편견 없이 대하는데 말입니다. 하기는 고아 같다는 느낌은 전혀 개인적인 것이지만.” (중략) 인실은 방금 고아 같다는 오가다의 말이 생각났고 옆에서 걷고 있는 여원 사내가 실제 고아 같이 뵈기도 했다.<sup>24)</sup>

오가다는 여관방에 멍청한 얼굴을 하고서 앉아 있었다. “못 만나려니 하고 왔는데 계셨군.” “당신도 어지간히 갈 곳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오가다는 안경을 밀어 올리며 민망한 듯 말했다. “서울에 오면 난 언제나 갈 곳이 없어요.” 앉지도 않고 선 채 말했다. “고아처럼?” “고아처럼.” “나는 그렇지 않소. 갈 곳은 많은 데 이려고 있지요. 만날 사람도 있는데 못 만나는 거요.” (중략) 오나가나 조선의 얘기, 일본에 관한 얘기, 사상의 동향, 세계 정세, 이제 신물이 났고 심각해지는 애정 문제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모두 쓸쓸했다. 외톨이 같았고 외딴 섬에 유배당한 느낌이었지만 한편 신물나는 얘기, 그 신물나는 얘기에 열중하는 각계 각층의 군상, 그 군상 속에서 쓸쓸해 하고 있는 자 신들이기 때문에 더욱 외톨이 같고 유배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지 모른다. 천천히 마시는 술이었지만 두 사람은 다 취해 오지 않았다.<sup>25)</sup>

최서희, 김길상, 용이, 송관수 등 부모 1세대와 달리 급변하는 세계정

24) 박경리, <토지8>, 3부 2권, 삼성출판사, 1988, 123-124쪽.

25) 박경리, <토지11>, 4부 2권, 삼성출판사, 1988, 197쪽.

세와 일제의 만행으로 2세대 젊은이들은 신분의 대물림, 타자적 정체성, 조국상실, 실연 등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다. 작중인물들은 혈통과 신분<sup>26)</sup>에 대해 모멸감과 상처, 열등감을 느끼며 동질감속에서 관계를 형성한다. 홍이는 영광에게서 어머니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죄의식을 공유하며, 상현도 여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방황한다는 점에서 영광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기생이자 아편쟁이 어머니에게서 낳은 양현은 백정 출신인 영광과 타자성을 공유하며, 고아이자 하인 신분인 길상은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을 떠돈다. 조선여인을 사랑하며 국적과 국경 이전의 인간이기를 바라는 오가다는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 정착하지 못하고 타국을 방랑한다. 부모 슬하에서 자라지 못하는 양현과 쇼지 등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식민지 상황이야말로 사랑도 가족도 꿈조차도 상실된 고아이자 이주자적 삶이다. 방황하고 유랑하는 제국의 타자인 이들은 구획과 경계를 정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횡단(trans~)하고 생성하는 경계인이자 이방인이다.

조찬하와 무라가미, 오가다는 여행을 반복하며 시대의 모순과 불안, 좌절을 행동으로 옮긴다. 오가다는 조선인 조찬하와도 친분을 맺거나 독립투사인 유인실을 연모하며 후라이보즈(風來坊主)라는 별명을 가진 대륙낭인(大陸浪人) 무라가미 쇼지와도 사교를 하는 다문화주의자이자 코스모폴리탄이다. 만인에 대한 보편적 도덕성을 지닌<sup>27)</sup> 두 일본인은 동질감 속에 가까워진다. 타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오가다는 세계주의 자임을 작품 속에서 여러번 표방하는데, 코스모폴리탄적 주체란 인터내셔널적 관점을 표방하지만 인종의 위계적 질서를 답습하지 않는, 자유와 평등, 박애정신을 체현하는 주체<sup>28)</sup>이다. 그는 또한 “지상에 단 한 사람

26) 이러한 인물 형상의 창조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를 증오하며 자신의 출생이 비극적 탄생이었다고 토로한 작가의 삶에서 비롯된다. - 이덕화, 『타자찾기』, 글누림, 2013, 77쪽.

27) 김문조, 「코스모폴리탄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3집, 한국사회학회, 2009, 9쪽.

28) 조은주, 「아이누, 기차, 코스모폴리탄」, 『인문논총』 제68집, 서울대 인문학연구

이라도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자유롭지 않다”는 바쿠닌의 말처럼 자유의 철학이자 연대의 철학으로서 모두의 자유를 추구<sup>29)</sup>한다는 점에서 아나키스트적 성향을 지닌다. 오가다는 2년 남짓 우수리강, 흑룡강으로 해서 국경도시 흑하와 애훈을 방황하며 국경분쟁의 자취를 더듬었고 치치하루, 하이라루, 만주리, 금주, 조양, 적봉, 열하, 몽고를 다니면서 나부끼는 일장기, 일본병정, 작부 들과 대면한다. 여행지는 남만주철도와 중국철도가 연결된 만주사변 당시 남부 만주의 경계선과 이어진 곳으로 관동군이 일본의 위성국인 만주국을 건설하기 위한 곳<sup>30)</sup>들이다. 가도가도 끝없는 설원, 초원, 늪, 사막을 배경으로 정신적 고향과 육체적 고통을 체험한 그는 폐잔병 같은 모습으로 신경에 도착하여 무라가미와 소통한다. 그러나 일본지식인과의 대화를 통해 “약자에게 뱀이나 늑대처럼 포악하지만 강자에게는 순식간에 쥐새끼로 표변하는” 일본인의 습성에 환멸을 느끼며 세즈코의 유혹을 물리치고 또 다시 여행을 떠난다. 민족적 편견을 가지지 않으며 한일합방을 부정적으로 인식한<sup>31)</sup> 이시가와 다쿠보쿠,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니체의 초인에 대해 무라가미와 논하면서 사랑하는 여자와 북만의 끄트머리 국경도시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오가다는 ‘목적도 없는 여행’ 혹은 ‘서둘 이유 없는 여행’이 일상이 되고 있다. 여행가방과 열차와 여관을 배경으로 하는 여행이 주는 흥가분과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코스모폴리탄’과 ‘기차 여행’ 모티프는 집단에 소속된 주체로서의 삶을 폐기해 버리고 철저히 개인으로 돌아감으로써 국민국가의 호명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지점을 확보<sup>32)</sup>하는 것이다.

원, 2012, 186쪽.

29) 하승우, 『아나키즘』, 책세상, 2008, 21-22쪽.

30) 최문형, 『일본의 만주침략과 태평양전쟁으로 가는 길』, 지식산업사, 2013, 172-178쪽.

31) 한기린, 『이시가와 다쿠보쿠의 슬픔과 한』, 월인, 1999, 203쪽.

32) 조은주, 앞의 논문, 175쪽.

……무라가미는 신경에 자리를 잡는 순간 그의 인생이 딱 정지해버린 것 같더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오가다의 경우는 3년 동안 어느 옥상에 매달려 있던 풍선의 줄이 끊어져서 허공에 둥 떠버렸다고나 할까. 그의 눈앞에 펼쳐진 무한한 공간, 끝없는 기차길, 같은 시간, 어찌면 오가다는 방향 감각을 잃고 우왕좌왕했는지 모른다.<sup>33)</sup>

여행길에 나선 오가다는 신경을 출발하여 개원, 심양, 하얼빈에 도착하기까지 동족과 조국을 혈투에 대한 회의를 자신을 도망갈 구멍을 찾기 위해 스스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한 것이라며 소속감과 자유 지향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식민지 여성을 사랑하고 식민지국의 아픔과 상처를 공유하는 오가다는 초인이 되고자 했던 무라가미와의 만남 속에서 이 시대의 젊은이야말로 허무주의적·염세주의적·비관주의적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다.

작가는 일본에 대해 비판적이고 양심적인 지식인 오가다 지로를 창조하여 유인실과 사랑을 나누게 하는 흥리가 착잡한<sup>34)</sup> 심정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군상을 예리하고 개성있게 창출하고 있다. 제국과 식민지에 낀 오가다의 슬픔과 한은 가족, 생계, 죽음, 불신, 토지, 출생의 타자성을 지닌 작가가 그린 방랑자의 모습이었다.

### 3. 어린아이·나그네로서의 초인적 인간형: 주갑

주갑은 용이의 친구인 영팔의 지인으로 전라도 출신의 타고난 소리꾼이다. 일거리를 찾아 전라도, 용정, 아라사를 방랑하는 그는 불품없는 외모와는 달리 타인에 의해 아름답게 기억되는 인물이다. 경상도 하동 평사리의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주갑의 캐릭터는 이방인의 표상이다. “형편없는 여위고 빈약한 체구”로 “늘어난 목덜미 살 가죽이 블록블록 흔들리고 먼지 낀 눈시울도 자주 흔들리는” 주갑은 길

33) 박경리, <토지12> 4부 3권, 삼성출판사, 1988, 350쪽.

34) 송호근, 『삶에의 연민, 한의 미학』, 『작가세계』, 앞의 책, 56쪽.

에서 우연히 만난 용이가 건네준 주먹밥에 감동하며 아이처럼 행복해 한다. “워낙 여위어서 가랑잎처럼 흔들리는” 그는 특유의 유머와 친진난 만한 태도로 용이의 마음에 든다. 용이를 만나 담배와 밥과 영팍이 소식과 일자리도 구할거라며 감사하는 주갑의 태도는 인생이 답답하고 슬프고 암담한 용이를 웃게 만든다. 용이의 눈길을 통해 주갑의 사람됨을 보는 두 사람의 첫 만남 장면을 ‘마디’로 규정한 정현기는 극진한 애정, 존경, 고마움으로 격상시키며 존재의 값을 드높인다<sup>35)</sup>고 평가한다. 주갑은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구성하지 않은 채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따라다닌다. 용이와 강의원과 혜관스님은 그렇게 만난 인연들이다.

“바람부는 날 수수깡 같은 몸을 흔드는” 불품없고 우스꽝스러운 주갑의 외양은 욕망이나 집착이 없어보이며 그와 접촉한 사람들은 웃음<sup>36)</sup>이 전염되어 삶의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된다. 그는 나이나 지체와 상관 없이 상대방에게 ‘나그네’라는 호칭을 쓰며 존대한다. 그의 아이 같은 행동과 나그네 같은 삶은 국가, 가족, 계급을 초월한 자유정신에 기반한다. 두 여인 사이에서 고통받는 용이도,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흥이

35) 정현기, 「<토지>해석을 위한 논리 세우기」, 『작가세계』, 앞의 책, 103-105쪽.  
 36) ①아까처럼 힐쭉 웃는다. 들숨날숨한 이빨이 담뱃진에 절어서 시꺼멓다.(4권, 232쪽) ②사내는 저도 모르게 남은 주먹밥을 모조리 먹어치운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드는가 낄낄 웃는다. 웃는데 눈꼬리가 젖는다.(4권 233쪽) ③주갑이는 아이처럼 몸을 뺑 돌리며 건너오는 용이를 쳐다보며 또 빙글빙글 웃는다.(4권 235쪽) 검버섯이 핀 얼굴에 가물가물한 웃음기가 번진다.(4권 292쪽) ④형썰 만 내 여게 앉아 있는디 참말로 인생이란 일장춘몽이라. 그 일리 지금은 까매득허 요잉. 하하하 하하하…….(4권 293쪽) ⑤주갑은 하늘을 쳐다보며 빙글빙글 웃는다.(4권 293쪽) ⑥주갑은 낄낄 웃는다.(4권 313쪽) ⑦어이 배 터지겠네. 호랭이 잡아라 혀도 잡겠는디, 허허허 하하하!(5권 369쪽) ⑧강의원이 눈으로 인사하며 돌아서려는데 주갑이 힐쭉 웃는다. 몇 발짝 걸어가다가 주갑의 웃음이 마음에 걸렸던지 강의원은 돌아보았다. 이번에도 주갑은 힐쭉 웃었다. 웃고나서 주먹으로 코언저리를 쓱쓱 문지르는 것이었다.(5권 386쪽) ⑨“허허헛헛, 허기사 뭐 무슨 말을 혀도 그 병 못 고치는 것 모를 내가 아닌디 허허헛헛…… 드시지요. 성님, 많이 드시란게로? 주모! 여거 술 싸게싸게 날라오더라고!”(9권 201쪽) ⑩주갑은 중얼거리다가 낄낄대며 웃는다.(9권 219쪽)

도, 한 서린 삶을 사는 기생 기화도, 엄숙한 강의원이나 까칠한 상현조차도 주갑에게 무장해제되는 것이다. 특유의 욕심 없는 친화력과 타자지향적 태도는 외모와 상관없이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한다. 길에서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는 주갑의 한 맺힌 목소리는 청아하고 보잘 것 없는 한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감동을 주는 그의 노래는 슬픔, 비극, 아픔을 내포하지만 무한긍정의 웃음과 유머 또한 그의 모습인 것이다.

소리꾼으로서의 예술가적 기질을 지닌 주갑은 누구와도 경계 짓거나 배척하지 않으며, 친근한 유머와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지만 현실문제에서는 날카롭고 정확한 판단능력을 갖고 있다. 그는 선녀 같은 기화를 보고 목덜미가 별개지며 눈물을 흘리는 감성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주갑이 지닌 명랑성은 이성과 감성의 조화와 초월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에서 나온 삶의 태도이다. 주갑은 지정된 거처 없이 용이와 길동무가 되기도 하고, 자신을 치료해준 강 의원을 따라가기도 하는 나그네길을 지향한다.

주갑이란 인물은 타인에 의해 선명하게 인식되는바, 용이에겐 그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다.

상현은 갑자기 주갑에게 친근한 것을 느낀다. 사십을 훨씬 넘긴 사내가 흐느껴 운다, 그것도 부지깽이 들고 쫓아오는 어미를 피하여 도망쳐 온 소년처럼 벽에 붙어서 울다니. (중략) 눈물에 얼룩진 가죽과 빼빼인 듯 여윈 얼굴, 그러나 눈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다. 슬픔에 가득 찬 눈이, 딱하고 우습기만 했던 상현은 그 눈을 보는 순간 놀란다. 왜 놀랐는지 알 수 없지만.<sup>37)</sup>

‘허허허 참, 저 사내는 전생에 새였을까? 노승 위에 홀로 앉은 한 마리 학이었을까?’ 혜관은 용정 올 때 구름을 뚫고 이동해가는 철새 생각을 한다. ‘저 사내 어느 구석에 저리 귀한 곳이 있었던고? 반하게 예뻐 보이는군 그래. 소리 공부 안해도 명창이다. 허 참.’<sup>38)</sup>

37) 박경리, <토지7> 3부 1권, 삼성출판사, 1988, 377쪽.

“지혜롭다 해야겠지만 하도 능청스러워서,” 송장환은 껄껄 웃는다. “어떻게 보면 주서방 그 사람은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다 갖추었다고나 할까요? 욕심만 빼고, 그런데 조금도 위대하진 않단 말입니다. 비극적인 요소를 낙천적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린애같이 무심한가 하면 수천 년 묵은 구랭이 같고”, “좋으면 화를 내고 싸움할 때 존대 쓰고”, “네 맞아요, 하하하하…… 염치 바르고 마음이 여리고 소심하면서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지요.” “뭐라 할까, 여자들한테 좀처럼 없는 성질인데 여성적인 걸 느끼거든.”<sup>38)</sup>

혜관의 독백이나 송장환과 이상현의 대화 속에서 그는 ‘소년’, ‘학’, ‘새’, ‘어린애’, ‘구랭이’, ‘여성적인 것’으로 표상된다. 망태 속에 과자나 사탕을 가져오는 주갑은 아이들에게도 다정한 할아버지이자 동무로 사랑을 받는다. 아내도 자식도 주거공간도 직업도 없는 주갑은 집착과 갈등, 귀속과 정착을 도모하지 않는 풍류가객이다. 유교, 역사, 자신의 서사를 갖지 않는 주갑은 자신의 뿌리인 주천자를 찾아 중국에 왔다는 실없는 농담을 하여 주위를 웃기고 연모하는 여자 앞에서는 토사곽란이 날 정도로 부끄러워하며, 강의원과 이상현, 홍서방, 혜관스님 앞에서는 독립과 효도, 식구 돌봄에 대해 할말을 다하는 사리분별이 뚜렷하고 사회의식이 강하며 불의를 지나치지 않는 용기와 지사적 태도를 보인다. 안주하지 않고 욕망을 초월한 주갑은 교육이나 제도권에서 배운 지식이 아닌 혜안과 통찰과 직관을 갖춘 인물이다. 그는 길동무들-의원, 스님, 기생, 농민, 노동자, 아이들, 양반계층-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면서도 개성과 주관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주갑은 니체가 제시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이자 개인적 이상인 위버멘슈<sup>40)</sup>의 형상을 하고 있다. 수줍음, 웃음, 눈물, 순진, 평정심, 해맑

38) 박경리, <토지9> 3부 3권, 삼성출판사, 1988, 219쪽.

39) 위의 소설, 248-249쪽.

40) Übermensch 위버멘슈는 초월적 신격을 대신하여 이 땅의 주인이 될 인간으로 초인 혹은 극복인으로 번역된다. 게오르크 짐멜은 위버멘슈를 인간종족의 월선

음, 용기, 용맹을 소유한 주갑이야말로 삶을 극복하고 초월한 초인인 것이다. 짐깨나 지는 정신 즉 시키는 것만 하는 낙타에서 사막의 주인이 되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사자의 단계 그리고 순진무구이자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제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인 어린아이<sup>41)</sup>를 마지막 정신으로 보는 니체의 사유에서 주갑은 마지막 단계의 존재로 표상된다. 그는 독배를 들어 죽어가는 곳이자 모두가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되는 국가<sup>42)</sup> 안에서 풍습의 윤리와 사회적 강제라는 의복에 힘입어 실제로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진<sup>43)</sup>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한다. 그 어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않는 나그네를 자처하는 주갑은 노래를 부르며, 자유롭게 떠도는 영혼으로 집착과 구속에서 벗어남으로써 혈통, 사랑, 욕망, 신분, 망국, 가문으로 고통받는 <토지>속의 인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놀이하는 어린아이로서 밝은 이미지를 지닌 주갑은 작품 속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독창적이고 신선하게 부각된다. 주갑은 언제나 삶을 긍정하며 울고 떼쓰고 나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게 웃으며 놀이에 몰두하는 어린아이이자 진정한 창조자<sup>44)</sup>이다. 그는 가문, 혈통, 핏줄, 지연이 아닌, 그 누구와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다문화적 사유와 타자지향성을 드러내며 집착과 구속, 욕망을 초월한 자유정신의 방랑자라는 점에서 위버멘슈에 가깝다. 어린아이, 여성적인 것, 초인적·지사적 면모 등 ‘~되기’가 자유롭고 자신을 고착화하지 않는 그는 노마드의 속성을 갖고 있다. 작가는 현실 속에서 욕망하고 신음하고 고통 받는 서희나 월선, 용이의 삶에 애정을 갖고 창조했지만 명랑, 평정, 무욕의 자유개념<sup>45)</sup>을 지닌 주갑

---

더 높은 단계로 신이 사라진 시대에 신을 대체하는 인간, 인간을 초월한 인간이라는 의미 즉 인간을 뛰어넘은 어떤 인간 이상의 존재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 고명섭, 『니체극장』, 김영사, 2012, 361쪽.

41) 프리드리히 니체, 김정현 역,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책세상, 2002, 40쪽.

42) 위의 책, 81쪽.

43) 위의 책, 397쪽.

44) 고명섭, 앞의 책, 393쪽.

을 지향했던 것이다. 이는 의도했던 인물이었으나 그다지 성공하지 않는 길상에 비해 주갑이는 의외로 성공했던 인물로 만족해 하며 사석에서 이 인물에 많은 애착을 보인다<sup>46)</sup>고 한 작가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다.

#### 4. 국가·사랑·예술에 대한 회의 및 시대의 데카당스: 이상현

전통유교이념과 근대식민지교육 사이에 낀 이상현은 시대가 지닌 압박에 직면할 신념과 용기 없이 방황하는 디아스포라 지식인이다. “청백리의 자손으로 오기로 가득 차있던 미소년”인 상현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아버지 이동진의 그늘에 가려 여성편력과 폭음 그리고 주위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하얼빈 뒷골목을 배회하는 늙은 주정뱅이이자 낙오자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인 최서희가 자신이 아닌 미친한 하인을 선택한 상처를 간직한 그는 기생인 기화(봉순)에게서 딸 양현을 낳지만 또 다른 열등감으로 모녀를 책임지지 못한다. 어린 시절 집안에서 맺어준 본처, 사랑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서희, 타자성을 공유하며 서로 위로했지만 자존심을 훼손한 천한 신분의 봉순, 자신을 짝사랑하는 임명희를 거절하는 상현은 조국, 가문, 창작, 사랑, 가정 그 어느 것에도 정착하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시대적 질곡이 이상현의 디아스포라적 삶으로 투영된다. 독립투사인 아버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삼류연애소설이나 쓰는 형편없는 잡놈으로 평가받는 상현이야말로 전통의식/근대의식, 생활인/독립투사, 안정(가족)/방황(사랑, 불륜)의 경계에서 갈등하

45) 니체는 자유에 대한 정의를, 자기 책임에의 의지를 갖는다는 것,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 노고와 난관과 궁핍과 심지어는 삶에 대해서까지도 냉담해지는 것, 자신의 문제를 위해 인간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자유는 남성적 본능, 전투적이고 승리의 기쁨에 찬 본능이 다른 본능들 이룰테면 행복본능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프리드리히 니체, 백승영 역, 『바그너의 경우·우상의 황혼·안티크리스트·이 사람을 보라·디오니소스 송가·니체 대 바그너』, 책세상, 2002, 177쪽.

46) 정현기, 앞의 논문, 105쪽.

는 식민지 지식인의 형상이다. 상현의 방황, 무기력, 무책임과 결단력의 부재는 식민지 근대의 모순을 표상한다.

‘위대한 부친에 개망나니 같은 아들’, ‘뒷간에서 허우적거리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자학하는 상현은 명망 있는 독립운동가인 아버지에 대한 콤플렉스와 조흔한 아내, 최서희, 기화, 임명희에 대한 자책과 부끄러움으로 살아간다. 일본유학은 했지만 학원 정도의 청강생 수준에 불과한 자신이 소설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며 자기모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세속적 출세도, 적극적인 독립운동도,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도 없는 이상현이야말로 방황하는 대다수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

…조흔한 아내는 영원한 타인일 것 같았고 그리움보다 미움을 더 강하게 품게 된 최서희는 먼 곳에, 날이 갈수록 더욱 멀어져가는 여자다. 기화의 경우는 연민과 편안한 잠,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가슴, 방황을 하는 공통점, 그런 것으로 하여 기약도 없는 만남을 지속해왔지만 그것이 나마 사내 자존심 때문에 괴로운 관계가 아닌가. 상현은 아내가 영원한 타인인 한에 있어서는 자신도 영원히 남편이란 위치에서 부초(浮草)일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절대 이혼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글을 쓰자, 문학에 생애를 걸고 승부를 보자, 그러나 한심하다. 자기 모멸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sup>47)</sup>

이상현은 삼류소설 원고료로 삶을 지탱한다. 그에게 문학창작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국가와 가문과 사랑을 복원하지 못하는 절망에 대한 도피이다. 현실주의자도 독립주의자도 이상주의자도 될 수 없었던 상현은 가장 객관적이고 어느 입장에 처해서는 안된다는 문학관을 지닌 작가의 길을 걷는다. 자기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생각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글쓰기는 치료적 의미를 지니며,<sup>48)</sup> 아버지, 양현과 봉순에 대한 죄의식과 참회를 통해 상처를 치유해 나간다. 간도, 일본, 서

47) 박경리, <토지7>, 앞의 책, 371쪽.

48)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7, 33쪽.

울, 만주, 연해주, 하얼빈을 방랑하고 이주하고 여행하며 귀향하지 못하는 상현의 삶은 식민지 지식청년이 감당해야 할 디아스포라적 형벌이었다.

길상, 상현, 영광은 정치 없이 떠도는 시대에 예술을 통해 시련과 절리, 상처치유라는 입사제의를 통과한다. 국외자이자 무국적인간으로서 해외를 떠돌고 방랑하는 식민지 젊은이들은 타자지향적 자세와 예술에의 귀의, 고아의식, 경계인으로 변혁하고 창조하며 안주하지 않는 이방인상을 보여준다. 윤씨부인이나 최서희, 조준구와 같은 양반세력이나 밀정들이 집안과 토지, 가문과 명예를 중시하며 기존질서에 포섭되거나 귀환하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안정을 추구하는데 반해 길상, 오가다지로, 송영광, 이상현은 안정이나 귀소본능보다는 구질서, 관습 같이 구획하고 경계 지우고 선을 그어 배척하는 상수화된 규칙에서 탈주하고자 한다. 식민지 젊은이들은 근원적인 자기탐색과 사랑과 실연, 타자인식, 예술에의 귀의라는 성인식과 성장통을 겪으며 청춘의 입사를 통과한다. 여행자, 이주자, 방랑자인 제국의 타자들은 망국민으로서의 디아스포라적 운명을 감내해야 했다.

#### IV. <토지>의 동시대적 의미와 21세기적 접속

<토지>는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 중의 하나로 한의 응어리를 담은 박경리의 역작이자 한국문학사에 영원히 남을 역사대하소설이다. 5부 16권에 달하는 이 소설은 제국의 타자인 식민지 젊은이의 타자적 정체성과 타자지향성, 다문화적 사유와 자아 찾기를 위한 여행, 방랑, 이주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소설로도 읽힌다. 작품의 배경인 해방 이전으로 그치지 않고 동시대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최근 조명받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문제와 탈국경 이동 모티프가 나타나

기 때문이다. 식민지 청년들이 신지식 교육, 독립운동, 승경유람,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끊임없이 유동하고 떠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길위의 소설, 로드드라마로도 볼 수 있다. 저항과 독립투쟁, 계몽과 봉건성 극복과 더불어 생존을 위해 떠났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타자지향성, 외부지향성을 보인다. 이들은 이방인의식으로 경계를 넘고 상수화되고 고착화된 규칙들을 초월하고자 한다. 여행과 이주를 통한 떠돌음은 독립과 더불어 추구해야할 근대화를 향한 길찾기였으며, 개인에게는 분열하는 자아를 정립하는 자아 찾기로 귀결된다. 여정 속의 만남과 사건을 통해 자기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며 인생의 지향점을 도출하게 되는 아름답지만 치열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토지>를 독해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일이다.

600여명의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인물 중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주갑, 오가다 지로, 송영광, 이상현을 중심으로 이들의 여행과 방황, 이산적 삶의 중심에 놓인 시대적 질곡과 허무와 비판의 실체를 고찰해 보았다. 신분의 한계와 아버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진정한 가족을 이루지 못한 채 퇴폐와 타락, 여행과 예술 행위로 도피했다는 점에서 송영광과 이상현은 허무주의자이자 데카당스이다. 국가, 사랑, 예술 그 어느 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시대에 절망하고 분노하며 해냈던 식민지 젊은이의 삶은 비난받을 수 있겠으나 작가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이들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고 있다.

오가다 지로는 다문화적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코스모폴리탄이자 세계주의자이다. 조선여인과 조선을 사랑하며 동족과 일본을 비판함으로써 동일자가 되지 못한 그는 가족과 거처와 정주를 거부하고 여행하는 디아스포라적 의식과 삶을 지향한다. 전쟁과 불안의식, 인간에 대한 불신, 민족과 국가의 경계 등 오가다가 고뇌하는 근대가 낳은 절망과 한계는 오늘날의 화두이자 인류가 풀어야할 숙제로 현재진행중이다. 어린아이, 나그네로서의 초인적 인간형인 주갑은 가난과 신분, 지역 등의 경계를

초월하는 삶을 영위하며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타고난 소리꾼으로 주변을 행복하고 부럽게 만드는 인물이다. 국가, 가족, 목적 없이 삶이 주어진 대로 이동하고 적응하는 주갑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위버멘슈이자 인간을 뛰어넘은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상현은 전형적인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으로 국가, 사랑, 예술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회의하고 타락하며 방황하는 시대의 데카당스이다.

가족을 이루지 못했거나 정주하지 못한 송영광, 오가다 지로, 주갑, 이상현이야말로 작가가 지향하고 공감했던 인물로 박경리가 위대한 작가임을 증명하는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캐릭터로 평가할 수 있다. 나그네, 고아, 소년, 어린아이, 무지개 이미지로 표상되는 이들은 상처치유, 타자지향, 다문화적 태도로 부초처럼 떠돈다. 해방, 전쟁을 겪으며 유년기 출생의 아픔, 남편과 아들의 죽음, 암선고, 생계담당, 창작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여성억압적 현실과 인습폐해, 인간불신으로 고통받았던 작가는 이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 그녀가 꿈꾸었던 자유로운 영혼과 삶을 지향했던 것이다. 또한 타자지향적·외부지향적인 자세로 여행하고 방랑하고 이주했던 남성인물들을 창조하여 아프고 슬픈 시대를 감동적으로 그려나감으로써 <토지>의 다채로운 매력을 더했다.

## 참고문헌

### 연구대상작품

박경리, <토지> 1-12권, 삼성출판사, 1988, 13-16권, 솔출판사, 1993.

### 논문

강찬모,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나타난 간도의 이주와 디아스포라의 귀소성 연구」, 『어문연구』 제59집, 2009, 207-227쪽.

김만수, 「자신의 운명을 찾아가기」, 『작가세계』 제22권, 세계사, 1994, 82-93쪽.

김문조, 「코스모폴리탄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3집, 한국사회학회, 2009, 1-22쪽.

김철, 「민족-멜로드라마의 악역들: <토지>의 일본(인)」, 『일본비평』 제3권, 서울대 일본연구소, 2010, 138-165쪽.

류보선, 「비극성에서 한으로, 운명에서 역사로」, 『작가세계』, 앞의 책, 18-45쪽.

박혜원, 「박경리 <토지>의 인물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1-149쪽.

송호근, 「삶에의 연민 한의 미학」, 『작가세계』, 앞의 책, 46-64쪽.

장경렬, 「슬픔, 괴로움, 고독, 사랑 그리고 문학」, 『작가세계』, 앞의 책, 65-81쪽.

정현기, 「2부만으로 읽는 박경리 <토지>론: 나와 너의 관계거리와 나의 나뉘 찾기 <토지문학공원>」, 『존재론연구』 제15권, 한국하이데거학회, 823-851쪽.

조윤아, 「박경리 <토지>공간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21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287-326쪽.

- 조은주, 「아이누, 기차, 코스모폴리탄」, 『인문논총』 제68집,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2, 159-191쪽.
- 제1회,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박경리문학 오십년의 재조명』, 2010, 1-111쪽.
- 제2회,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전쟁체험과 박경리문학』, 2011, 1-91쪽.
- 제3회,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토지>와 인접학문』, 2012, 1-122쪽.
- 제4회, 박경리 문학제 문학포럼 자료집, 『<토지>의 교육적 가치』, 2013, 1-131쪽.

#### 단행본

- 강영안, 『타인의 얼굴』, 문학과지성사, 2005.
- 고명섭, 『니체극장』, 김영사, 2012.
- 김동규 외, 『문학과 영화이야기』, 학문사, 2002.
- 박천홍, 『매혹의 질주 근대의 횡단』, 산처럼, 2002.
- 서경식, 김혜신 역, 『디아스포라기행』, 돌베개, 2006.
-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 출판부, 2004.
- 이덕화, 『타자 찾기』, 글누림, 2013.
- 이미림, 『우리 시대의 여행소설』, 태학사, 2006.
- 이상진, 『토지 인물사전』, 마로니에북스, 2012.
- 이선주, 『경계인들의 목소리』, 그린비, 2013.
- 조남현, 『한국소설과 갈등』, 문학과비평사, 1990.
- 하승우, 『아나키즘』, 책세상, 2008.
- 한국문학연구회, 『<토지>와 박경리문학』, 숲, 1996.
- 한기련, 『일본의 국민시인 이시카와 다쿠보쿠의 슬픔과 한』, 월인, 1999.
- 리처드 J 번스타인, 김선옥 역, 『한나 아렌트와 유대인 문제』, 아모르문

디, 2009.

미하일 바흐친,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슬라보예 지젝 외, 라깡정신분석연구회, 『사랑과 대상으로서 시선과 목소리』, 인간사랑, 2010.

시몬느 비에른느, 이재실 역,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자크 데리다, 남수인 역,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질 들뢰즈,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프리드리히 니체, 김정현 역, 『선악의 저편 · 도덕의 계보』, 책세상, 2002.

<Abstract>

## Wandering Youth and Diasporic Situations in The Land

- With a focus on Yeong-gwang, Ogada, Jugap,  
Sang-hyeon

Lee, Mi-rim\*

The Land one of the most loved novels by Korean people. Depicting the deep resentment of Korean people, the masterpiece of Park Kyung-ri is a historical epic novel and family novel that will leave its everlasting mark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Consisting of five parts and 16 volumes, the work is characterized by others' identity and orientation toward others through the wandering and drifting of youths of a colonized country, who are others in the empire, and also by traveling, drifting, and migrating for cultural thinking and ego search. The work contains contemporary meanings that are still reinterpreted today beyond the years before Liberation. Which is its background, because it has the Korean diaspora issue and beyond-border migration motif that have recently captured limelight.

This study set out to focus on Jugap, Ogada Jiro, Song Yeong-gwang, and Lee Sang-hyeon that have failed to attract attention among approximately 600 attractive and original characters in the work and investigate their traveling, wandering, and drifting, the yoke

---

\* Gang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of the times at the center of discrete life, and the substance of futility and pessimism. Both Song Yeong-gwang and Lee Sang-hyeon are decadent nihilists in that they fail to overcome the limitations with their social classes and their fathers and build a true family and escape to decadence, corruption, traveling, and artistic acts. One might blame the youths of the colonized country for their lives involving no accomplishment in terms of nation, love, and art and wandering around, being desperate and enraged, but the author understands and accepts them from an affectionate standpoint and depicts them as attractive and beautiful beings. Ogada Jiro is the only Japanese person positively described by the author that had a negative view of Japan and Japanese people. He is a cosmopolitan armed with multicultural global citizenship and an anarchistic tendency. Loving Joseon woman and Joseon itself and criticizing his fellow Japanese men and Japan, he rejects family, residence, and settlement and orients himself toward daily life based on traveling. Involving ongoing doubt, reflection, and self-examination as an imperial intellectual, his traveling is based on the yoke of the times. In the novel, he is depicted as an others-oriented, descent, and beautiful young man. A superhuman form of human as child and drifter, Jugap is a possessor of free spirit with cheerfulness, disinterestedness, laughter, transcendence, and naiveness. Transcending and overcoming poverty, social class, and regional limitations, he evolves into a natural singer that can move the emotions of people and make his surroundings happy and enviable. Moving around and making adaptations as life dictates with no nation, family, and gaol, he is *Übermensch* defined by Nietzsche and a being beyond the human level. Previous studies on *The Land* analyzed characters by dividing them into male vs. female and

positive vs. negative figures, but the present study analyzed Song Yeong-gwang, Ogada Jiro and Lee Sang-hyeon and found that those characters that failed to form a family or settle down were the ones that the author oriented herself toward and understood. They are attractive and original characters that demonstrate that she was a great author. their lives are re-perceived as the aspects of the 21st century-nomads that have returned to nomadism again and contain more contemporary meanings and values than pre-modern and modern character groups that have taken root in history, motherland, or family. Represented by such images as drifters, orphans, boys, children, and rainbows, they are travelers and wanderers that fail to adapt to the contradicted colonial modern times and wander around like winds, clouds, and duckweed. They have the perspectives of wound healing, orientation toward others, and multiculturalism, engage in such acts as singing,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and doing literature, make an attempt at spiritual enhancement, and endure physical pain. The aspects of their lives are the free life dreamed by the author and present the human form of the 21st century in an era of nomads.

Key Words : travel/wandering/emigration motive, wandering youth, diaspora, cosmopolitan, a superman, decadence

■ 논문접수 : 2014년 7월 13일

■ 심사완료 : 2014년 8월 29일

■ 게재확정 : 2014년 8월 30일